

북방의 끓는 가마가 안 보이는가?

한 경 호(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지도자가 연임되거나 새로운 사람으로 선출되었고, 러시아와 일본도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로 세계의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일극화(一極化) 되었고, 바야흐로 전 세계는 잘 살기 위한 경제투쟁의 열기에 휩싸여 있다. 서방 자본들은 더 이윤이 많이 나는 나라의 투자처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자본주의권의 나라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경제개발과 성장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의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의 성장은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은 자국의 경제성장에 발이 묶여 거북이 걸음이다.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밀림지대들이 무차별적인 벌목 앞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온갖 쓰레기를 다 받아들이는 드넓은 바다도 점차 오염되어 바다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산호초가 원인 모르게 죽어가며 병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구 생명체 전체의 위기요, 인류의 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며 전체를 살리려는 의지와 노력은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생태계의 위기에 겹쳐 우리 한반도는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투쟁이라는 또 하나의 해묵은 문제를 안고 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로서 아직 6·25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남북 형제 간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반목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인의 분노’와 살인에의 충동은 아직도 한반도 백성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자기비움과 죽음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반공의식에 찌들어 있는 한반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 같다.

‘북방의 끓는 가마’를 보고 있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적 신앙고백과 “도움을 구하러 애급으로 내려간 자들은 회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사 31:1),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급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급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급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사 30:2-3)며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의 반(反)앗시리아 정책 및 군사 대국화 정책과 그에 따른 친애급 사대주의 정책을 신랄하게 질타한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통적으로 북방 대륙세력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랜 기간 역사를 일구어 온 한반도의 정세가 구한말 시대 이후 미국을 위시한 태평양 세력의 영향하에 편입되어 북방과 태평양, 즉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치른 것이 한반도 근대사 100여년의 기간이다. 그 무섭고 잔인했던 세계사적 문명 충돌의 한 가운데서도 민족의 독립과 존속, 그리고 앞날을 위해 비통하게 죽어 간 수많은 우리 조상들의

뼈아픈 희생을 생각할진대 우리가 지금 소리(小利)와 원망(怨望)에 사로잡혀 있을 때인가!

북방의 거대한 뿔은 가마가 점차 눈앞에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남방의 이집트는 우리를 지켜주겠노라고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길 몰라 방황하고 있다. 정치화된 교권 주의자들은 축복과 은혜라는 달콤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심판과 징벌이라는 생똥한 말로 헐박하고, 세속적 탐욕에 사로잡혀 왜곡된 말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땅에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민족사를 통해 역사해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참된 예언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북방의 뿔은 가마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남방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는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 이상 더 큰 교훈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의 입술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안보 논리를 우상으로 섬기며 따라간 유다의 최후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절절하고 분명한 역사적인 산 교훈이다. 눈에 보이는 경제력과 군사력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은 현실 속에서 허황된 목소리일 뿐이다. 오호 통재라! 누가 이 민족의 제단 위에 자신을 비워 바칠 것인가! ❷